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위해... '변화', '혁신', '소통'

총장 신년사로 본 2018 대학가

2018년 대학가 화두는 '변화'와 '혁신', '소통'이다. 총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고, 혁신을 위한 개혁에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소통에 귀를 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회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것이 서울대에 주어진 사명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올해는 선(善)한 인재상 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들이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언급하면서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이고 대학 교육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아울러 지난 일기동안 펼쳤던 토론 교육 강화와 지성과 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 외 프로그램 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학내에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다.

이밖에 서울대 법인화 7년차를 맞아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학내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국내 사립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이, 수월성보다는 보편성이 우리의 노력을 더욱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염 총장은 기업이나 정부, 사회단체 등의



성낙인 서울대 총장 | 염재호 고려대 총장 | 김용학 연세대 총장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 김창수 중앙대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선한 인재상 확립 결실 맺길"

염재호 고려대 총장
"대학, 이익보다 미래 위한 조직"

김용학 연세대 총장
"인재 위해 교실 안팎 허물어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통섭·융합 기반 융복합 강화"

김창수 중앙대 총장
"4차산업 위해 패러다임 바꿔야"

조직이 현재를 위해 산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대학은 미래를 위해 사는 조직"이라며 "20세 전후의 학생들이 이삼십년이 지난 다음 우리 사회와 인류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교육시키는 터전이 바로 대학"이라며 "우리는 미래를 앞서 보고, 현재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에 휩쓸리지 말고 미래를 앞서 보고, 앞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총장은 "학문의 독자성은 보존되어야 하는 한편, 학문의 융복합화와 네트워크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려대 발전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사회도 돌아보는 우리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과 개편 등 융복합 추진에 대

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 총장은 이밖에 SK미래관 완공과 정경대 신관 및 문과대 신관 신축, 수당삼양 패컬티 하우스 준공, 과학도서관 리모델링, 사이언스 파이프파크와 자연계 교양관 신축, 메디힐 지구환경관 신축,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건축과 융합연구동 신축 추진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예고했고, 교직원 연봉인상과 후생복지 시스템 개발, 학생들을 위한 구내식당 개선과 후생복지 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장학제도 확충, 인재개발 시스템 확충 등 새 정책을 추진해 구성원 자긍심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2일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숙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0년까지 달성할 10개 과제인 10 by 20(Ten by Twenty)는 연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산업사회에서는 똑똑한 인재가 필요했다면 미래사회에서는 좋은 인성을 가진 따뜻한 인재가 요구되고,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연세는 교실의 안과 밖을 허물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창의성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또다른 자질이라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마음껏 토론하며 끼를 발휘하는 장을 마련해 주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학생들의 창

의성은 창업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수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먼저 본 뒤 교실에서는 토론 위주 학습을 하는 '플립 클래스룸'(Flipped Classroom) 과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구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국제공동연구 지원, 단과대학장 특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도 배우게 될 것"이라며 "냉소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보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세인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한국외대가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으로 통섭과 융합에 기반한 융복합학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한국 대학의 전통적인 강의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과 학생지도 패턴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외대형 특화 교육모형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대형 특화 교육모형은 외대가 교수당 학생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도 수업 만족도가 경쟁 대학에 비해 낮은 현실을 반영, 교육과 학생지도의 개혁 모델이다.

김 총장은 "AI(인공지능)시대에 맞춘 플러닝 등 혁신적 수업 방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연계, 강의실 첨단화 등을

지원할 플랫폼사업단을 신설할 것"이라며 "외대형 플브라이트 장학제도인 IDS(International Diplomatic Scholarship), 전략지역 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 코어사업,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 프로그램 등을 연결지어 품격있는 국제 인재양성사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학문적 시장수요에 대응한 학제개편과 융복합학 신성 등도 예고했다. 김 총장은 "교수가 강의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만족도가 제고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중앙대 총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학의 수많은 성과와 별개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세상"이라며 "2018년 개교 100주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와 혁신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깊고, 넓고, 급한 변화를 주도하려면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대학경영의 패러다임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에 충실함으로써 구성원의 에너지를 모으고 발산시키는 비전 경영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학과간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육의 본령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전문인 양성"이면서도 "여기에 더해 시대의 흐름은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여기에 부응해 '강의지원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의 유연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를 통해 융합전공, 복수전공 등 다전공의 편의성과 수월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전공개방 모집제도 정착을 통해 교육경쟁력과 공유대학의 씨앗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입 희망연봉 2876만원, 눈높이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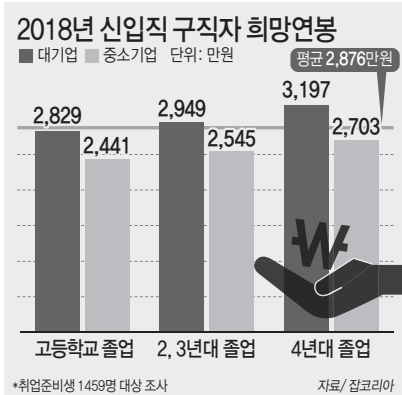
중소기업 목표 구직자 증가세 기업별 희망 연봉 수준 차이나

올해 신입 구직자의 희망연봉은 평균 2876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목표로 한 구직자가 늘어나 눈높이를 낮춘 취업활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와 알바몬은 2018년 신입직 취업 준비자 1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종학력별 희망 연봉은 대학원졸이 평균 327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년대졸 2950만원, 2.3년대졸 2747만원, 고졸 2.635만원 수준이었다.

기업별 희망 연봉도 수준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 취업 준비생은 평균 3105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2646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목표 기업 1위는 '중소기업'이 42.8%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28.2%, 공기업 18.6%, 외국계기업 10.4%이었다.

취업 목표 기업은 최종학력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및 2.3년 대졸 구직자 중에는 '중소기업' 취업준비

를 하는 신입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졸 구직자 중에는 과반수 이상인 60.0%가 '중소기업' 취업이 목표라고 답했다. 2.3년대졸 구직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5.6%가 '중소기업'을 취업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기업(20.3%), 공기업(14.9%) 등의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구직자가 많았다.

반면 대학원졸 구직자 중에서는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5.0%), 공기업(18.3%), 외국계기업(13.3%) 순이었다.

구직자들 목표 기업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기업의 복지제도와 전공과의 일치도가 많아,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벨 세대'와 '직무중심 채용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05% 인하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으로 증액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약 131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총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작년 2학기까지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

으로 확대된다.

취업 후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은 작년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등록금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소득분위 산정에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게 좋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입생은 제한이 없다. /한용수 기자

과천과학관, 60세↑ '청춘과학대학' 수강 모집

2월 23일까지 수강신청 접수

국립과천과학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지식을 알려주는 '제5기 청춘과학대학' 수강생 8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강의는 과천과학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 전시물 체험·해설과, 현장탐방 등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문덕남 웃음치료사), '잃어버린 미각을 찾아서'(이은화 다이어리달대표), '전문학: 밤하늘의 문화'(황호성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교수), '청춘과학사대 시니어 CSI'(경향대 정교래 교수), '사람을 살리는 약초이야기'(삼육대 조경남 교수) 등이다.

수강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3일까지로 전화나 방문, 이메일, 팩스로 가능하다. 문의: 02-3677-1524 /한용수 기자

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에 '구직난' 우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10명중 7명(72%)은 아르바이트 구직난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을 꼽았으며 갑작스런 해

고, 근무시간 단축통보(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심화(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 악화(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 심화(8.7%), 임금체불 빈도 증가(7.9%)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아르바이트생 4명중 1명(25.9%)은 해고됐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용수 기자